

제 3 부 남한에서의 23 년

1947 년 봄에 이남으로 피난

그 건물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남 땅이었다. 우리는 너무도 기뻐다. 검문소의 미군들이 우리들 머리와 뒷등 속에 DDT 를 뿌렸다. 병균을 가져왔을까봐 었을 것이다. 무엇을 뿌리건 상관 없이 우리는 이남땅을 밟은 것 만으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겨우 11 살짜리가 철원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온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이남으로 떠나지 않았다. 작은 어머니가 서울 안암동 여자라고 했는데 왜 떠나지 않았는지 나는 그 것이 항상 궁금했다. 아마도 현재는 뺏겼지만 언젠가 찾을지도 모르는 토지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훗날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아버지와 1947 년에 미련없이 헤어졌다. 그후 보고 싶다거나 궁금하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다. 본 마누라와 자식 셋은 영원히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생활

그 당시의 서울은 함흥시내 같았으나 네온사인이 더 많고 더 화려했다. 작은 오빠는 어디에 가서 우리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우리는 그들을 찾았다. 드디어 가족들과 합세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왜 서울집은 그렇게 추운가였다. 작은 오빠와 내가 도착한 후 곧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보리밥은 왜 그렇게 맛이 없는가였다. 갑자기 가난해졌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북에 집이 세채나 있었다. 그러나 집을 떠 메고 오는 길은 없었다. 그래서 지주들은 아남 땅에 오긴 했으나 줄지에 가난에 떨어지고 말았다. 서울에서는 큰오빠 친구집 방 한칸에 6 식구가 묵어야 했다. 난생 처음으로 배고프고 추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평생 모르고 살았던 빈곤을 실감했다. 우리는 오빠 친구집에 몇일 묵은 후 돈암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거기에는 방이 두개 있어서 오빠네 식구가 한방을 사용했다. 나는 돈암국민학교 (초등학교) 4 학년에 입학했다. 나는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길에서 어떤 사내아이들이 사투리 쓴다고 욕을 하며 놀렸다. 나는 서울욕을 제대로 못해서 "망할자식"을 "말자식"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처음 들어간 날 수학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98 점을 받았다. 방과 후 몇 아이가 우리 집에 따라 왔다. 동무하자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거기에서 아이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애들이 싸가지고 오는 도시락 반찬부터 달랐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눅이 들지도 않았다. 6 학년에 올라가니 그 당시 벌써 어떤 아이는 과외공부를 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자습서를 사서 밤낮으로 읽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인심이 좋아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몰지 않아서 여름이면 책상 밑에 숨어서 자는 아이가 많았다. 나는 홀로 책상에 앉아 자습서를 공부했다. 나는 우등생이었고 앓을 때도 지각도 안하고 개근했다. 아파도 학교에 가서 읽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올케언니가 오빠의 아침준비하는 동안 돌 전 애기인 조카 영수를 업고 전차 정거장에 나가 큰 오빠를 위해 기꺼이 줄을 섰다. 항상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오빠가 나중에 나와 내자리에 서서 금방 전차를 탈 수 있었다. 오빠를 보내고 나는 집에 들어가 애기를 내려놓고 아침밥 먹고 챙겨서 학교에 등교했다.

4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집이 없어 옮겨 다녀야 하는 생활을 했다. 우리는 한 때 돈암동에서 서소문으로, 큰오빠 친구집에 방 두개를 얻어 이사를 해서 나는 서소문에서 출발하여 종로 4 가나 을지로 4 가에서 전차를 갈아타고 돈암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도 나는 항상 학교에 제일 일찍 등교하곤했다. 그 다음 초등학교 6 학년때 우리는

회현동으로 이사하여 큰 오빠는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미국인 호텔에
통역관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그 호텔에서 빨래 일을 하신 적도 있다.
경제적으로 무척 고생하던 시절이었다. 우리가 살았던 큰 적산집이 바로
길가이 있어서 우리는 만두를 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판 적도 있다.
작은 오빠는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온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령 설탕을
속에 넣고 구으면 나는 설탕이 녹아 줄줄 흐르는 호떡방을 즐겁게
오빠에게서 얻어먹곤 했다. 돈암국민학교를 1949년에 우등상과 개근상을
받으며 졸업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서울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3년동안 우리는 4번을 이사할 정도로 집이 없어 고생을
했다. 이 집고생이 훗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줄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1949년. 이화여중에 합격

피난민이라 나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음을 안 나는 친척언니가 다니는
공립인 무학 여중에 입학원서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거기에 내지 말고 이화 여중에 내라고 했다. 그래서 비싼지 싼지도 모른채
1949년에 나는 부자집 아이들이 많이 오는, 피난민 아이에게는
어울리지도, 가당치도 않은 비싼 이화 여중에 시험을 쳤다. 그 당시 이화
마당 옆에 언덕이 있었다. 나는 그 언덕 나무 밑에 홀로 서서 부모들이 함께
와서 마실 것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고 종이 칠
때까지 서 있었다. 그러다가 종이 치면 다시 들어가서 시험을 쳤다.
부모들이 답을 맞춰 보고 야단 법석할 때 나도 그들의 어깨 넘어로 목을
길게 뽑아 그들의 답과 내 것도 맞춰보니 나도 꽤 한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는 사돈벌 되는, 훗날 miss Korea 진엔가 뽑힌 박현옥이와 한 집에
살았다. 그들은 2층에, 우리는 아래층에 살았다. 합격을 발표하는 날
현옥이와 나는 떨어졌다고 생각들어 발표를 보러 가지않고 집에서

당굴었다. 그런데 큰 오빠가 관심이 지대했던지 발표를 보고와서 처음에는 둘이 다 떨어졌더라고 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오빠는 "아니야, 둘이 다 합격했어" 하고 알려주었다. 어머니와 오빠들은 한편 기쁘나 학비를 줄 형편이 못되는지라 '저 계집애를 어찌면 좋은가, 누가 이화에 시험을 치라 했는가'? 야단치고 염려하면서 돈을 모아 보았으나 학비의 반도 준비 못했다. 큰 오빠가 이화여고 교장 신봉조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의논드렸다 한다. 오빠의 schedule book 에 "Jin Sook entered Ewha Girls High School"이라고 영어로 쓰여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영어문장은 정확했다. 큰오빠의 영어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다. 서울유학을 보내준다고 약속하던 오빠가 이화여중에 합격했는데 왜 기쁘지 않았겠는가? 그 때 신봉조 교장선생님은 "있는 것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나는 겨우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다.

이화여중에 들어갔을 때 현저하게 눈에 띄운 것이 기독교 학교라는 것과 남자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는 분들이었다. 첫 눈에 내 아버지하고는 너무 달라보이는 분들이었다. 특별히 일학년 매반 담임, 김선생님과 오주경 종교부 선생님이 그러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거의가 잘사는 집 아이들이라 멋쟁이들이었고, 그들은 토박이고 나는 굴러 온 피난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데도 당당했다. 교복이 없어 어머니 친구의 딸에게서 국방색 여군 옷도리를 얻어다가 곤색 물을 드리고 이화교복에 다는 흰 칼라를 달아 입고 다녔다. 누가 봐도 이화 교복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내가 울고 불고 하면서 교복을 해내라고 떼를 썼더라면 우리 어머니와 오빠들이 어떻게 해결했을 것이건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기꺼이 그 것을 입고 다녔고, 한번은 떨어진 운동화를 어디에서 주워다가 꿰매서 신기도 했다. 번쩍거리는 가죽구두를 신고 다니는 다른 아이들의 눈에 내가 거지로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애들은 그저 나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못 본척 했는지 모른다. 감리교 목사 딸인 조영순이는 나를 정동교회로 잘 데리고 갔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 놓게되었다. 비오는 날에는 자가용으로 등교하는 애들도 많았고, 대개는 비우장을 입고 다녔다. 내게는 우산도 비옷도 없었다. 그런 것은 모두 내게 사치였다. 나는 겨울 옷이건 여름 교복이건 단벌이었다. 밤에 빨아 말려서 아침에 다려서 입었다. 목정동 근처에 살 때 여름교복이 구겨질까봐 버스를 안타고 정동에 있는 학교에 까지 걸어다녔다. 지금생각하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나는 주눅이 들지않았고, 창피하지도 않아 집에 가서 해내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이화여중에서는 영어시간이 있었고 선교사가 가르치는 회화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던지 어려웠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꼬부랑 글씨를 베껴오면 큰 오빠는 그런 영어글자는 없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내가 꼬부랑 글씨를 제대로 꼬부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영어회화는 짧은 기간이었다. 6.25 전쟁이 곧 나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빠들 이야기를 쓰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나는 자라면서 큰 오빠에게 한대 맞았고 작은 오빠에게 두대 맞았다. 큰 오빠가 한 번은 자기 콧구멍에 털이 났다 어쨌다고 하면서 들여다 보라고 했을 때 "자기 아내더러 해달라고 하지 왜 나더러 그런 것 까지 하라고 하는가" 하고 대들어서 한대 맞았다.

작은 오빠에게는 "계집애가 밤에 무슨 교회를 가느냐" 고 하면서 늦게 다닌다고 한대 맞고, 고등학생 때 무슨 야단을 맞았을 때인가 "밥 먹여준 것 밖에 해 준 것이 있느냐" 고 해서 한대 맞았다. 내가 성장하여 밥벌이를 해 보니 밥 먹이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것임을 미처 몰라 철없는 대꾸를 한 것이다. 그 외에는 오빠들에게 맞은적이 없다. 어머니에게는 장난이 심하다고 몇 대 맞았던 것 같다. 훨씬 어렸을 때,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어머니 출타 중에 동네 아이들을 과수원에 데리고 들어가

과일을 따 주었다고 한대 맞은 것이 기억난다. 그날 어머니는 우는 나를 씻기고 새로 사오신 신발을 신켜 주시던 일을 기억한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나다

그럭저럭 중학교 일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 갔을 때 어느 날인가 전쟁이 일어났으니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점심 도시락을 먹다 말고 도로 덮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1950년에 내 나이 15살이었다.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1945년 8월 15일)이 된지 만 5년이 채 못되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에 피난 온 후 살아 남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며 집고생을 하던 중, 군에 입대하면 관사를 준다는 조건에 큰오빠는 육사 특기에 입대해서 9기생으로 훈련을 마쳤다. 그래서 목정동 군인 관사에 방을 두개 얻었다. 나는 지금도 오빠의 군번 16339를 기억한다. 그 때나 이때나, 특히 미국에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고 전쟁에 나가 죽기도 한다. 전쟁이 죄이고, 가난이 죄이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였다. 목정동 관사에 살 때 오빠는 사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얇전하게 빗고 멋을 내고 집을 나섰다. 오빠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고, 멋쟁이였다. 상냥하고 친절하여 여성들의 남성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 날 아침에 집을 나서던 그 모습이 오늘도 내 눈에 선하고 내가 본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날 후로 나의 지원자이며 아버지였던 큰 오빠와의 생이별은 나를 너무 아프게 했다. 나는 난폭했던 아버지는 없어도 살 수 있었으나 큰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올케언니와 어머니와 나는 매일 울었다. 이그를 쓰면서 나는 지금도 운다. 큰 오빠는 어머니에게 효자였다고 들었다. 아들이 죽는 날이 어머니가 죽는 날이고 어머니가 죽는 날이 아들이 죽는 날이라고 했다한다. 결혼 상대를 어머니를 잘 모실 사람으로 선택할 만큼

효자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어머니처럼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 애쓴 어머니가 없다 싶어서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해가면서도 우리를 잘 키우셨다.

전쟁이 일어난 3일만에 공산군이 서울에 들이닥쳤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다. 삼팔선에서 서울까지는 20 마일 밖에 안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한다. 이남의 군인들이 아무리 잘 싸웠어도 준비없이 당한 전쟁이라 역부족으로 3일안에 서울이 함락된 것이다. 우리는 피난도 못 갔다. 대통령이하 고관들은 국민을 뒤에다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먼저 한강다리를 건너 후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울에 갇히게 되었다. 서울에서 우리가족은 이북피난민에다, 이북에서 숙청 대상인 지주에다, 국군가족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총살대상이라는 위협 속에 살았다.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어느날 나는 한강 근처에서 흰 속 셔츠바람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미군을 보았다. 15살에 본 그의 얼굴이 60년이 넘은 오늘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 전쟁에 싸워주러 왔다가 잡힌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많이 가슴이 아팠다. 흑자는 자기전쟁 (미국전쟁)에 싸우러 왔다고도 할 것이다. 성장한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국전쟁에 죽은 미군의 수가 58,000 명이고 집에 돌아와 자살한 재향군인 수가 한국전쟁에서 죽은 수 보다 더 많다고 들었다. 남, 북한에서 죽은 사람의 수도 양쪽 각각 백여만 명씩 된다고 했다. 우리 큰오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남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북은 초토화 되었었다고 한다. 이 전쟁은 수 많은 과부, 고아, 거지, 가족잃은 독고노인들을 생산해 냈다. 전쟁을 일으켰거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양 정부지도층의 죄이지 피해당한 양민들의 죄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한다. 우리 오빠가 남긴 어린 조카들과 올케언니와 어머니와 내가 겪은 하늘에 닿는 고생을 생각하면, 그리고 전쟁에서

식구를 잃고 오늘까지도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이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웠다.

이 전쟁은 6월 25일에 일어났다하여 "6.25 사변" 혹은 6.25 전쟁이라고 부른다. 누구든지 한국사람이면 "6.25" 만 말해도 6.25 전쟁을 말할 수 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 북이 서로를 blame 한다. 혹자는 이북이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일으켰다고 하고, 혹자는 미국측이 제 2차대전을 겪고 경제적으로 피폐하여 세계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경제회복을 하겠는데 한국이 적절해서 삼팔선에서 북한군을 최대한으로 약을 올려서 이북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게끔 유도했다고도 한다. 또 혹자는 이남측에서 일으켰다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북측을 두둔하는 사람들의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북이 먼저 때린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 미국을 포함한 UN 군이 합세하여 남한을 도왔다. 그래서 남의 자식들까지 우리땅에 피를 뿌리고 뼈를 묻게 했다.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밤에 오빠의 군복들을 태우는 일도 매우 가슴 아픈 경험중의 하나였다. 군인가족이라는 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해야했다. 목정동 관사에 살지 못하고 옛날에 살던 판자집에 숨어, 앞문, 뒷문 다 열어놓고, 앞문으로 잡으러 오면 뒷문으로, 뒷문으로 오면 앞문으로 도망할 준비를 하고 살았다. 학교는 그런대로 아이들을 등교하게 했다. 공산군은 즉각 우리 학생들에게 김일성 노래를 가르치시 시작했다. 하루는 작은 오빠가 잡혀갔다. 화장실에 간다하고 도망쳐 나오자마자 서울을 떠나 경기도 안에서 뱅뱅도는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200 리길인 경기도 구둔이라는 곳에 큰 오빠 친구가 - 선덕의 구장 아들 - 살고 있다는 그 곳에 피난을 갔는데, 마침 기차 역 앞이라 이북 공산군들을 태운 기차가 하루에도 몇번을 들리는 무서운 곳이었다. 작은 오빠는 부엌에다 방공호를 파고 그 속에 3 개월을 영어사전 하나를 가지고 지냈다. 그 당시 작은조카 철수는 겨우 2 살이었는데 전쟁통에 이질을 만나 다 죽게 되었고, 너무 말라서 다리가 비틀어지고 사람 몰골도 아니었다. 쌀이 너무 귀하던 시대였다. 공산군들이 기차에서 내려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달라는 일이 많았다. 앓는 어린 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밥을 남겨주어 그 원수의 밥을 먹이곤 했다. 아니지, 쌀은 우리쌀이었다. 큰 올케는 돈벌이를 한다고 서울로 가고, 남겨놓은 이질 걸린 2 살짜리와 4 살짜리 두 어린 조카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 몫이었다.

전쟁과 피난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호구지책으로 나는 15 살 나이에 밥벌이를 해야 했다. 나는 200 리 거리를 2 일간 도보로 쌀을 서울에 갔다 팔고 다른 물건을 사다 시골에 파는 시골 여인들을 따라나섰다. 우리 집에서 누가 나더러 그렇게 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래야 할 것 같았다. 200 리는 끼니때만 빼고 쉬지않고 도보로 2 일 걸리는 거리였다. 날이 어두어지면 그 여인들과 함께 길가에서 잤다. 나는 그들을 따라 쌀 한말을 머리에 이었다 어깨에 짊어졌다하면서 걸음이 빠른 그들을 따라 2 일간 걸어 서울에 도착해서 쌀을 판 돈으로 고무신을 사가지고 이고, 지고 하면서 2 일, 200 리를 걸어 집에 도착하면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앓은뱅이가 되었다. 다리와 발목이 너무 아파서였다. 그 고무신을 어머니가 동네에 나가 보리와 감자와 바꾸었다. 그렇게 3 개월간 나는 4 번 왕복 즉 800 리를 걸었다. 11 살에 철원에서 서울까지 걸었던 것 등 어려서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나는 키도 크지 못했고 무릎의 연골도 남달리 일찍 절단났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내 나이의 사람들보다 일찍 왔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 때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게 아프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전쟁은 나와 내 식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

1950년 9월 28일 - 9.28 수복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3개월은 3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으나 국군과 유엔군이 이겨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날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뺏아준다고 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날 밤에 마침 내가 쌀을 이고와서 팔고 고무신을 사가지고 떠나는 바로 전 날밤이었다. 화원시장 근처의 친척집에서 잤는데 밤에 눈을 떠 보니 그 옆집이 불이 붙고 있었다. 그 옆집과 우리 친척집과의 사이는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집 불이 이집으로 옮겨오는 일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나는 내 배낭을 메고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 집에서 뛰어나갔다. 그집 식구들은 아무도 일어나지않고 곤하게 잠든 상태였다. 그날 밤 길거리는 인산인해였다. 폭격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헤메고 있었다. 갈데도 올데도 없어 모두 길에서 헤맸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 공산군이 남산에 숨었기 때문에 미군이 인천항에서 남산을 향해 대포를 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근처의 집들도 다 불이 붙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남산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10-20분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 그리고 쫓겨 후퇴하는 공산군은 서울시내에 불을 지르고 보는 사람마다 죽이고 도망하는 중이라 했다. 저쪽에서 대포를 쏘서 죽이고 이쪽에서 달아나면서 죽이고 그야말로 난리통이었다. 대포는 남산에 숨은 공산군을 향해 쏜다지만 그 근처에 살았던 시민들은 나는 제주도, 땅으로 꺼지는 제주도 없이 고스란히 함께 맞거나 파편에 맞아야했다.

밤새도록 총소리와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길가를 헤매다가 그럭 저럭 새벽이 되고, 다 죽었는지, 서울이 수복되었는지 조용해졌을 때 나는 거기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에 가려고 나섰다. 가는 길에 오장동 근처의 집들은 모두가 폭격맞아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널려있는 송장들과 채 무너지지않고 서 있는 굴뚝하고 폭파인 우물이었다. 나는 송장 하나하나를 피해서 걸어야 그 건너편동네로 갈 수 있었다. 우리가 숨었던 판자집은 오간데 없었다. 어머니가 땅에 향아리에 담아 묻은 소지품, 사진 같은 것들도 간데 없게되었다. 모두가 폐허가 되었다. 그 다음날 보니 목정동 동국대학으로 올라가는 길가에는 많은 송장을 함께 길가에 묻었는데 팔과 다리가 보이기도 했다.

200 리를 걸어 우리가 피난 갔던 곳으로 고무신을 짚어지고 돌아갔다, 같은 방법으로 감자와 보리를 바꿔 먹고 준비해서 우리식구는 걸어서 서울로 돌아왔다. 전쟁에 나가 필경 전사했을 큰 오빠의 운명을 놓고 가족들은 소식을 기다리며 울며 지냈다. 2살, 4살짜리 아이들과 26세의 아내를, 특히 어머니를 뒤에 남겨놓고 눈을 못 감았을 오빠를 생각하면서 일생을 울며 사는 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어려서는 어머니가 우실때 항상 같이 울었고, 청소년 시절에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우는 생을 살았다. 이렇게 15살에 나는 너무 많은 고생과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1951년 1월 다시 부산으로 피난 (1.4 후퇴)

이렇게 전쟁이 끝났으면 오죽이나 좋았을까? 서울에 돌아와 두세달을 살았을까, 성탄절을 지냈을까 했을 때 다시 유엔군이 공산군에게 밀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남으로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피난을 1.4 후퇴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1951년 1월 4일을 말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우리를 군인 가족이라고 기차에 태워준다고 속히 서울역으로

가라고 했다. 이미 기차는 만원이란 문으로 기차에 오를 수 없어 유리창으로 올라탔다. 기차 안은 콩나물 시루였다. 기차 문에 매달리고, 기차 꼭대기에도 탄 채로 기차는 부산진까지 가는데 12일이 걸렸다. 무슨 이유인지 가다가 정지하기를 몇 시간씩 했다. 그 때면 내려서 밥해 먹고 기차가 떠나면 밥솥을 들고 유리창을 통해 다시 기차에 기어올랐다. "난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우리가 부산진 역에 내렸을 때는 떠난지 12일 되는 밤이었다. 여관은 모두 초만원이고, 물 한 모금 살 곳이 없었다. 남한 땅의 제일 끝부분인 부산에 피난민을 모두 실어다 쏟아 부어 부산 전 시가 초만원이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해산 날이 가까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해산하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었다는 이야기를 실감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부산에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우리같이 아무 연고없이 낯선 사람들은 방을 얻지못해 보따리를 베개삼고, 땅바닥을 구들삼고, 하늘을 천정삼아 부산진 역 마당에서 몇 일밤을 잤다. 완전히 노숙자였다. 이 경험이 훗날 나로 하여금 가난과 집이 없는 서러움을 이해하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기차 역 주차장에서 잔 지 3일 되던 날 어느날 한 노인이 와서 자기 마당 안에 들어와 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 마당 안에다 텐트를 치고, 차차 레이션 박스로 학교방을 짓고 우리 다섯 식구는 8x8가량의 크기의 작은 방에 3년을 살았다. 겨울에는 돌 하나를 달구어 수건에 싸서 한 가운데 넣고 큰 이불 하나 덮고 다섯이 발을 거기에 다 넣고 자곤했다. 우리 외에 다른 가족들도 그 마당에 그렇게 함께 살았다. 그 때 내 나이 아직 만 16살이 채 되기 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나는 생계를 도왔다. 어머니가 길에서 작은 판자위에 물건을 놓고 행상을 하셨을 때 나는 부산 야미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역할을 했다. 부산진에서 부산 야미시장까지 걸어서 한시간 가량 가는 거리였다. 그 시대에는 어디든지 걸어서 다녔다. 새벽 3 시에 어머니와 함께 나가 좋은 자리를 잡는 일도 했다. 집주인이 대문을 잠겼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담을 넘어야 했다. 율케언니는 오징어를 삶아서 기차 역에 나가 내리는 손님들에게 팔아 우리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되었다.

나는 부산 피난 중에 이화여중이 학교를 열기 전에 내 친척이 다니는, 부산 어느 산에 학교문을 연 무학여중 2 학년에 잠시 다니다가 이화여고가 영도섬에 텐트를 치고 문을 열었을 때 중 3 학년에 복귀했다. 우리반, 중학교 3 학년 한 반에 120 명이였다. 각 학년 마다 한방에 다 모였으니까. 그 때 이봉국 영어선생님이 영어를 얼마나 혹독하게 그리고 잘 가르쳤는지 우리는 걸으면서, 통근 기차안에서, 밤에 자면서, 잠꼬대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기가 바빴다. 오늘 내게 영어실력이 있다면 그 때 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봉국선생님께 일생 감사한다. 이봉국 선생님 별명은 “말대가리”였다. 휴식 시간에는 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김옥경이나 조영순이가 칠판에다 말대가리를 그리곤 했다. 다음의 사진은 영도섬에서 찍은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중 3 이였다. 나는 나무로 만든 사과 괴짜를 책상삼아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때 작은 오빠는 우리와 부산에 살지않았다. 직업을 얻어 다른 도시에 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올케언니와 나 세 여성이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밥벌이를 해야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작은 오빠는 오빠대로 지계꾼들이 먹는 시장음식을 사먹고 돈을 벌어 모았다고 했다. 훗날 환도 후에 오빠는 그 돈을 미친으로 헌집을 사서 양젓물로 씻고 닦아서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경험이 훗날 건축업으로 성공케 한 것 같았다.

1953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환도

부산진 어느 노인의 집 마당에 마련된 임시 학교방 단칸짜리 집에 우리는 3년을 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매우 한가했다. 아직 모두 피난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작은 오빠는 임시로 당씨네 요리집을 지키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아 갑자기 단칸 방에서 방이 열개나 있는 텅빈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네가 안방을 사용하고 어머니와 나와 어린 조카들과 큰 올케들도 한방씩 사용하고, 신나게 나는 매일 다른 방으로 옮겨다니며 공부를 했다.

서울에 와서 고 2 때 영어선생님이 김숙동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꼭 영어시간에 들어오시면 맨 앞에 앉은 내머리를 장난삼아 손에 든 회초리고 살짝 때리시면서 "김진숙이가 해석해 봐" 하셨다. 나는 그 선생님한테도 영어를 많이 배웠다. 이화에서 이봉국선생님과 김숙동 선생님이 우리 영어실력의 기초를 놓아주신 분들이시다. 영어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영어회화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을 나는 훗날 깨달았다.

다음 사진은 서울에 돌아와서 운동시간이 끝난 후 운동복을 입은 채로 찍은 것이다. 오른 쪽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조영순이하고 찍은 사진이고, 왼쪽사진은 나중에 여의사가 된 굉장히 고생하면서 공부한, 인생의 어려움을 아는 성영자하고 찍은 사진이다. 두 사진에서 오른 쪽 애가 바로 나이다. 이복에 살 때 나는 학교에서 제일 부잣집 아이였으나

이화여고에서는 전교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다. 그 때 내 나이가 만 17살이었으니 나는 나의 인생의 첫 17년 동안에 인생 고락을 다 경험한 것 같았다.

다음의 사진은 운동부 애들인데 앞줄에서 맨 왼쪽에 앉은 애가 바로 나이다. 여기 함께 하신(뒷줄에서 맨 오른쪽) 분이우리 체육지도 선생님이다. 나는 운동부에서 넓이 뛰기와 단거리를 했다. 그러나 매일



방과후에
연습을
시켜서
공부에
지장이 너무
많아

체육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며 도중하차했다. 평생 도중하차를 모르는 내가 운동부에서만은 기꺼히 도중하차했다.

그분의 별명은 "안똥똥이"였다. 또 체육선생님 한분이 계셨는데 그의 별명은 "안바보"였다. 우리는 선생님마다 별명을 지었다. 역사선생님은 이빨이 썩은 것 같았는데 그분의 별명은 썩은 대추씨였고, 줄여서 "썩씨"였다. 우리는 80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우리끼리 모이면 선생님들의 별명을 이야기 하면서 서로 "계집애" 라고 부르면서 깔깔 웃는다.

강희 장학금: 내가 중학교 일 학년에 입학했을 때 우리 하나 윗반에서 아이 하나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것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씨의 딸이라고 들었다. 그 어머니는 유명한 이화대학의 박마리아 교수였다. 이기붕 부통령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악명 높은 분이었으나 강희가 살아서 공부할만한 금액을 이화에 장학금으로 내 놓았다고 들었다. 그 장학금이 바로 “강희 장학금”이었다. 나는 피난민 아이로서 가난해서 학비를 조달 못할 때 이화에서 강희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 장학금은 지금도 살아 많은 학생을 공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진은 겨울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맨 왼쪽이
나인데 여군 옷을
고쳐 만든 교복을
입은 것 같이 보인다.
나는 그 나이에
호리호리하지 않았다.

1953년 18살부터 교회생활

우리어머니는 함흥에 사할 때 우리들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선덕으로 이사를 간 후 그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거니와 어머니의 시집이 미신을 믿는 분들이라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일이 중단되었다.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친척 할머니가 신자라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라고하셨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무슨 교회와 정동교회와 영락교회에 몇번 가 본적이 있다. 신발을 벗고 교회당에

들어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 것도 가기 싫어서 연보 돈을 다른 아이에게 교회에 갔다 내라고 보내고 나는 교회를 안 간 적도 있었다. 나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화여중의 내 친구 조영순이 가끔 나를 정동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었다고 이미 말했다. 그러나 부산피난 중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 때는 믿음도 없었거니와 호구지책과 공부에 시달려서 교회에 가는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네의 교회의 종소리를 들은 것이 기억난다.

환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대문 밖에 있는 김진 집에 모여 시험공부하다가 주일 예배시간이 가까워 오면 공부하던 우리 몇사람을 진이는 언덕 위에 있었던 동대문 교회로 인도했다. 나는 아무 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목사님이 짹 짹 소리지르셔서 골치가 아프던 일만이 기억난다. 그 때 나는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얼마 후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정동교회에서 열리는 채플(chapel)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계숙이가 동네교회에 가자고 해서 제일교회에 가 보았다. 그 교회는 콘서트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 교회인 것 같았다. 계숙이가 학생회에 가입하자고 해서 함께 했다. 거기에서

점점 신앙에 불이 붙어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쯤부터는 우리 반의 종교부장까지 되어 아침 첫 시간에 기도를 인도했다. 이 때가 성령님께서 내게 처음으로 역사하신 첫 계시라고 믿는다. 그 이전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었겠지만 이때부터는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듯 하다.

사친의 어른은 종교부의 오주경 선생님이고 여학생은 나이다. 오주경 선생님은 어머니같이 인자하셨다. 나는 그 분이 인도하는 종교부에서 열심히 일했다. 이화에서는 당시의 감리교 감독이셨던 변홍구박사의 성경시간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가 이화에서 내게 세례를 주셨다. 그 때 내 나이가 만 18 살이었다. 그가 가르치신 성경공부가 좋았다. 주님은 그가 사시던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 오셔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는 각오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시절에 이런 예수님께 반해 버렸다고 말한다.

그 당시 제일교회의 담임이셨던 이기병 목사님은 예배시간을 엄수하시는 분이었는데 지도자들이 제시간에 도착 못하면 그는 어린 나를 자주 수요예배나 새벽기도회에 목회기도를 시켜 나의 신앙을 키워 주셨다. 이기병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준비 시키셨던 것 같다. 나는 교회학생회에서 있었던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를 주제로 웅변대회를 했을 때 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일등을 하기도 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또하나의 경험은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강성일 여선생님이 이화 채플시간에 오셔서 가끔 설교를 하셨다. 그는 까만 치마에 연분홍색 저고리에 화장을 약간 하신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을뿐만 아니라 조용히 하시는 그의 설교는 나의 흥금을 울리곤 했다. 그분은 설교에 "즈웃도" 라는 일본 말을 섞곤하셨는데 "쭈욱, 줄곳, 계속"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다. 나는 그 선생님의 설교에 완전히 반해서 우리동네에 사는 친구하고 그 선생님 동네, 사직동에 방을 하나 얻고 저녁이면 그 선생님택에 가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왔다. 나는 반드시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다. 돈이 없어서 선생님 동네에 사는

일은 오래 계속하지 못했다. 성령님께서도 이번에도 강성일 선생님을 통해 나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았다. 이 것도 **계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윗반 상급생 언니가 가끔 아침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분은 너무도 기도를 잘했다. 언젠가 나도 그 언니처럼 기도를 잘해 보고싶었다.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에게 이런 감정들은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195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1954년 겨울에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다니던 제일교회에서 행하던 100일 새벽기도회에 축농증 수술을 해서 몹쓸 피로울 때도 개근을 하며 충실히 참석한 일이 있다. 집안의 어른들은 법대, 의대에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고 기도했다.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더니 백일이 거의 다해 가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공부를 하라는 비전을 받았다. 이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한다.

19살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다

나는 고등학생으로 제일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다. 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성남교회 주일학교 선생도 했다. 무엇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다. 우리반 학생들
As a high school kid I taught Sunday School. My whole class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을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열심히 심방을 하여 우리 반은 항상 100% 출석이었다. 교인이 아닌 부모들도 주일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빨리 교회에 갈 준비를 해라. 안 가면 선생님이 또 오실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반은 전원 출석이었다. 큰 오빠가 남기고 간 영수와 철수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 그 두 아이는 내 등에 오줌 똥을 싸면서 큰 아이들이다. "너는 장래 장로감이라 하면서" 영수를 꼭 데리고 다녔다. 훗날 큰 조카는 장로가 되었다. 그는 5살 때부터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도 충실히 하는 가족을 이루었다. 영수엄마, 나의 큰 올케는 아들을 "애비"라고 부르지만 나는 지금도 67 된 조카를 "영수야"라고 부른다. 미국식이라면 미국식이고, 아직도 내게는 자식이나 동생이나 다름없는 그 조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어찌하랴. 그도 내게 전화할 때면 "영수예요"라고 한다. 위의 사진속에는 영수와 철수도 끼어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내 옆구리에 기대어 있는 것이 철수이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영수인 것 같다. 나는 사진에 나타나듯이 고등학생때에도 통통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한 때는 똥보였기도 하다.

1955년 이화여고를 졸업하다

1955년에 이화여고를 졸업했다. 2015년이 우리가 이화를 졸업한지 60년이 되는 해이고 내가 80회되는 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60회 졸업기념에 가고 싶고 그 때까지 책 몇 권을 출판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은 졸업사진을 찍을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강가, 공원등에 나가 포즈를 취하고 멋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그룹은 내가 인도하는 찬양과 성경공부하는 모습을 찍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내가 그 당시 이화친구들에 비해 골동품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하는 모습을 찍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동의해준 친구들이 더 놀랍다. 그래서 나는 졸업앨범에서 꺼내어 scan 하여 여기에 붙여본다. 아래 사진에서 - 왼쪽에서 두번째 - 반쯤 일어선 자세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다. 이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가? 계시였던가? 친구들은 나에게 "너는 신학교에 갈 것 같다"고 하고, 이화종교부 선생님들도 감리교 신학을 가라시며 감리교 신학대학에 데리고 가서 학교를 구경시켜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학생회에 참석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제일장로교회에서는 한국신학대학을 가라고 했다.



1955년 한국신학대학에 입학 하다

요새는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 부른다고 한다. 우리 당시에는 한국신학대학이었다. 한국신학에 입학하니 학생들이 갑자기 모두가 어른이었다. 나이든 신학생도 많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도 옷 차림부터가 어른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수유리 버스에서 내리면 한신 캠퍼스까지 까마득했다. 5리는 걸어야했던 것 같다. 학교 캠퍼스는 언덕에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 언덕이 온데 간데 없고 모두가 평지로 변해있다. 동자동 캠퍼스에서 일학년을 시작했고 3학년과 4학년은 위의 사진에서 보여주는 수유리에 캠퍼스에 옮겨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졸업했다. 우리 시대에는 쟁쟁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사진의 김정준 박사님은 영국의 Edinburgh 의 신학박사이시고, 미국의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유니온신학등 일류학교의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들을 가르치신 교수님들을 자랑한다.



나는 김정준 교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의 아버지라고 했었다. 덕으로 찾아뵈면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이야기도 잘 나누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애제자였음을 지금까지도 잊지못한다. 사진은 목사님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시던 날 김포비행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는 나의 귀중한

mentor 중의 한분이시다. 나는 교수님의 책을 교정도 봐 드리고, 성남교회에 다닐때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교회사무실에서 달필로 설교하나를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쓰기도 했다. 글과 언변 모두 좋으신 분이셨고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요, 설교가요 학자셨던 재능 모두를 받으신 이셨다. 그는 폐병 말기에 마산 요양원에서 마지막날 들을 보내면서 관까지 준비해 놓은 입장에서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동료들의 시중을 듣다가 완치를 경험한 "관에서 나온 사나이"란 별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글을 쓰신 분이다. 어느 해인가, 1956-1957년이었던가 한인교회들이 미국선교사들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 일일히 간섭하고 지도할 필요없다는 성명을 내기 위한 회의를 성남교회당에서 모이는 날이었다. 김목사님은 본인이 시무하는 교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자리에 계시기가 곤란하셨던지 나더러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셨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간 곳이 논밭이 있는 서울

근교였는데 논 사이에 약간 높은 언덕에 앉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일도 기억난다.



또 잊지 못할 교수님중에 한분이 위의 사진의 왼쪽의 이우정 교수님이시다. 어느 해인가 뉴욕에서 만나 반가워서 찍은 사진이다. 잊지 못할 몇 가지가 기억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원서를 읽었는데 우리학년에는 없었고 상급 학년에만 원서독서반이 있어서 나는 상급반에 가서 공부했다. 이우정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잘 봤다면 105 점을 주셨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항상 공부가 재미있었다. 한 학기에 독일어 시험을 6 번 봤는데 600 점을 받았다. 문익환 목사님께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세 번 시험에 300 점이 나왔다. 그러나 네번째 시험때 수술을 해서 시험을 나중에 혼자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병이 낫고 와서 다시 보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며 300을 4 번 본 것으로 쪼개여 평균 75 점을 주었다. 그것은 정말로 싫었다. 그래서 내 성적에 75 점짜리 불명예스러운 오점 하나가 있다. 나는 4 년을 남녀공학에서 똑똑하단 평가를 받으면서 공부했다. 훗날 남학생들은 "그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다던가,

김진숙이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오늘 이고생을 안할 것"이라고 말 하기도 했다.

또 한 분은 김재준 목사님이시다.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 민주화 운동에 탑승한 이유가 김대중씨와 김재준 목사님 때문이었다. 70-80 년대에 북미주 민주화 운동에 몸을 담으신 김재준 목사님을 따라 우리도 참여했었다. 우리가 살던 St. Louis 에서 년중행사를 host 해서 김재준 목사님, 문재린 목사님, 김상돈 장로님, 문동환 목사님등 거물급 인사들을 우리 큰 집에 모시기도 했었다.

나는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식 예배외에 다른 학교행사에 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나 농촌봉사에도 관심이 없었다. 20 살에 신학대학에 갔는데 시험은 항상 90 점 에서 100 점을 받았으나 신학을 얼마나 이해 했는지는 의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4 년제 신학에 갔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나이를 많이 먹고 신학에 온 사람들은 농촌 목회에도 관심이 많았다. 나도 그런 관심을 가졌더라면 농촌운동가가 되고도 남았을 것인데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 같다.

1958 년 어머니의 환갑잔치

우리 어머니는 1898 년생이시다. 1958 년이 그분의 환갑 (60 세)이셨다. 나는 그 때 23 살이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피난과 전쟁에 시달린 불쌍한 인생이라 오빠와 나는 환갑을 차려드렸다. 아래의 사진은 한국 풍속대로 환갑 상을 차리고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이다. 가운데 앉으신분이 어머니이시고, 애기를 안고 있는 남자가 내 작은 오빠이다. 그의 첫 애기였던 것 같다. 오빠의 오른쪽에 선 것이 인덕 이다 (상윤이의 어머니). 어머니 왼쪽에 선 것이 나이고, 나의 왼쪽에 서신분이 흥남 이모 (인덕이의 어머니)이시고, 이모님 앞에 선 것이 철수이다. 그 사진 속의

친척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다. 우리어머니도 1982년에 84세로 세상을 뜨셨다.



1958년 4월 26일 어머니의 환갑 잔치상
April 26, 1958, my mother's 60th birthday

1959년 3월 한국신학대학 졸업

졸업 때가 가까워 왔을 때 나는 당연히 내가 일등으로 졸업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학생이 일등이고 나는 이등이라고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교무실에 찾아가 성적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교수들이 재평가에 들어갔다한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졸업생가운데 1등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내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내가 일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의(justice)를 찾고싶어서였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생긴 이래로 여학생이 일등한 일은 없다고 야단들이었다. 그 남학생에게는 좀 미안했다. 졸업식날 참석하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 선교사는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끌어 안아주기도 했다. 지금은 다 옛일이 되어 버렸지만 그 당시는 여학생에게 일등을 주기 싫어서 교수들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나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속히 내가 일등이라고 뒤집어질 수 있었는지 모를일이다. 이 나이에 내가 별것을 다 들추어 내어 생각하는 것 같다.

부질없는 생각인 것을. 내 졸업식은 진실로 의미가 깊었다.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즉 "많이 배워 나처럼 살지 말라" 하시던 어머니가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다. 내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선물이었는지 모르겠다. 자식들 공부 때문에 그토록 애 많이 쓰시던 어머니이니 자식의 대학졸업장과 우등상장과 상품을 가슴에 안은 어머니에게 이 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잃기도 해 보니 어머니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알 것 같다. 부모역할도 자식역할도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할뿐이다.



1959년 한국신학대학을 일등으로 졸업하던 날
**1959, the day I was graduating from
 Han Shin Seminary with the highest honor**
 그 당시 한국의 부통령이었고, 한신의 명예학장이시던
 함태영 박사에게 일등상장을 받는 모습
**Receiving Award for the highest honor from Korea's
 then Vice President and the Seminary's honorable President**

일등상으로 Webster Dictionary 를 받았다. 영어공부를 계속해서 하라는 뜻이었을까! 그 당시 한국의 함태영 부대통령님이 우리 신학대학의 명예학장이셨는데 너무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좋으셔서 우등생들에게만

상장을 수여하시고 앉으셔야했다. 위의 사진은 그분에게서 상장을 받는 장면과 돌아서서 내려오는 장면이다. 아주 감격하고 감사한 장면이다.

무엇을 못해도 좋으니 공부를 많이하여 스스로 서서 학대를 받지 말라시던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나의 졸업식은 모두 참석하셨다.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식에서
어머니와 찍은 사진 (1960)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던 날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이다).

미국에서 받은 사회사업석사와 목회학 박사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계셨더라면 자신의 슬픔 모두를 깨끗히 씻어드린 것처럼 보람있어 하셨을 것 같다.

1960년봄에 단국 대학에서

문학사 취득

미국에 가서 신학석사를 하려면 학사가 하나 더 있어야한다고 해서 한신을 졸업한 후 단국대학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영문학사를 취득했다. 이 때에도 어머니가 참석하셨다. 너무 기뻐하셨다.



1960년 단국대학을 졸업하던 날, 어머니와 남편
1960, the day I was graduating from Dan Kuk University with my mother and husband

1960년 가을에 시카고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다

신학사와 문학사 둘을 가지고 시카고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이 되었다. 그 동안 또 한신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한 학기를 하고 유학생 시험에 합격하고 시카고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러 떠났다. 그 당시 유학생 시험은 장원급제만큼이나 힘들고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25살 까지 사는 동안 나 같은 피난민 아이에게 일생에 가장 기쁘고 명예스러운 일은 이화여고를 졸업한 일과 한신을 일등으로 졸업한 일과 미국유학시험에 합격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년 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중하차하면서 다시 와서 공부를 끝마칠 것을 자신에게 다짐하고 귀국했다. 미국으로 다시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다.

교회제도에 반발

나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많은 남학생들이 시험 때면 내 노트를 빌려다 보곤해서 나는 공부에 한해서는 남학생들의 리더였다. 그런데 졸업하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목사가 못되고 그 남자 친구들 뒤에서 그들의 지도를 따르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갑자기 역할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남, 녀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교회제도가 싫었기 때문이다. 딱히 목사로 안수를 받고 싶어서라기 보다, 그리고 목사로 안수받을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지만, 또한 전도사 역할 자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 녀를 동등하게 리더로 대우하지 않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다. 나는 적어도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실천하신 대로 남녀 리더십에 평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목사 후보생으로 잠시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평생 전도사 자리에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전도사는 해보지 않았다. 전도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건방진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 당시의 나는 이처럼 건방지고 철이 덜 들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와서 되돌아 보면 후회는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내게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